

(주소) 16614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00 (팩스) 031-231-7240

배포일: 2023. 4. 5.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일상의 풍경: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개최	1쪽	있음	<a href="http://www.ggcf.kr/">http://www.ggcf.kr/</a>	부서 : 공공예술팀 담당 : 최기영 전화 : 031-853-8191

## 《일상의 풍경: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개최

- ▶ 이번 주 4월 4일(화)부터 5월 12일(금)까지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
- ▶ 한국 시각예술작가의 다양한 현대미술경향 현지에 소개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원장 한보화)은 아르헨티나 현지 시간으로 4월 4일(화) 19시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Maipu 972, CABA)에서 《일상의 풍경: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동 전시는 한국의 시각예술분야 우수성을 현지에 홍보할 목적으로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원장 한보화)과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전시는 경기미술창고 소장작품 중 한국화, 서양화, 사진, 판화 등 2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경향을 아르헨티나에 소개한다.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한보화 문화원장은 "경기도 예술인 및 신진작가/그룹 총 21팀/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오랜만에 한국 시각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집중적으로 현지에 소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그 개최 의의가 크다."고 언급하며, 특히 "올해 경기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관객에게 한국의 우수 시각예술 콘텐츠를 다수 소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유인택 대표이사는 "한국 시각예술작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풍경》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팬데믹으로 닫혀버린 '일상'의 모든 것이 소중해지는 순간을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는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1층 기획전시실에서 5월 12일까지 계속된다.

[ 별첨 ]

1. 《일상의 풍경 :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전시 포스터
2. 《일상의 풍경 :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전시 현장

<b>&lt;별첨 1&gt;</b>	<b>《일상의 풍경 :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전시 포스터</b>
<b>&lt;별첨 2&gt;</b>	<b>《일상의 풍경 :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전시 현장</b>

Colección de la Fundación Cultural de Gyeonggi

# PAISAJE DE LOS DÍAS COTIDIANOS

일상의 풍경 :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Del 30 de marzo al 12 de mayo de 2023  
Centro Cultural Coreano

Organiza



Auspicia

